**벧전0224(1) Note**

**◆ 벧전0224와 관련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야기 모음**

사5305. 그러나 우리의 범법(페솨:반역,죄,범죄,범하다)들을 위하여 그가 상처를 입었으며(할랄:구멍을 뚫다,상처를 입히다,모독하다,약속을 어기다,시작하다,피리를 불다), 그가 우리의 사곡(邪曲)함[아본:아바(구부리다,굽게 만들다,왜곡하다)에서 유래,사악함,악,과오,범법,해,(불법에 대한)징계,죄,이탈]들을 위하여 으깨어졌느니라[다카:부수러뜨리다,상처를 입히다,다져서 조각을 내다,(조각으로)부수다,죄를 깊이 뉘우치다,으스러뜨리다,파괴하다,낮추다,압박하다,치다]. 우리 평강[강화(講和)/(솰롬:안전한,잘있는,행복한,정다운,안녕,건강,번창,평안,번영,친한,안부,호의,친구,인사,평화로운,쉬다,안전한,편안한)]의 응징(무싸르: 징계,책망,경고,교훈,억제,멍에,견제,교정,훈련,훈계)이 그 자 위에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의 채찍자국들(하부라:줄로 맨,채찍자국,멍든,상처,채찍,상함)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았느니라(라파:꿰매서 고치다,치료하다,낫게하다,의사,수선하다,온전하게 하다).

벧전0224. 그분은 나무에 달린 그분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친히 짊어지셨으니(아나페로:들어 올리다,짊어지다,끌고 올라가다,기르다,수행하다,앞지르다), 이는 죄들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법적 깨끗함[디카이오쉬네:히브리어 체다카(의로움,정직,공의,덕,번영,알맞게,의로운,의롭게,의롭게 행함)에 상응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공정(公正),정의,칭의,의]'에는 살아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채찍(몰롭스:검은 점,검은 눈동자,멍든 자국,멍,타박상,채찍)들에 의하여 너희가 치유를 받았느니라(이아오마이:치유하다,온전케 하다).

제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필요한 부분을 제 노트북에 옮겨놓은 것들 중의 몇가지를 올립니다.

◇ 많은 사람들이 위의 말씀(벧전0224)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부인에게 "자매님, 당신이 치료된 것을 아십니까?"

"두손을 들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요, 그리고 찬양하십시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받게 됨

이런 식으로 나는 십대시절 병자였을 때, 마귀를 물리치고 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나았다, "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관하여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지금 한 발자국도 떼어놓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나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내 몸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나의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십년전인, 1945년 3월에 저는 텍사스주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석유사업이 그때 한창 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집회를 주최한 목사님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는 그 교회의 소교구 교인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점심 초대한 집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긴형제님, 약 8년전에 어떤 일이 일어 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실 때에 그 무엇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녀는 천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변대도시의 병원에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는 다른주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니 결국은 달라스에 있는 세계적인 전문의에게 옮겨가야 했습니다.

“제남편은 석유회사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병 치레로 10,000달라를 소비해야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경기 시절이었기에 그 당시 10,000달라면 지금 환산하면 1억5천만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저희교회에 오셔서 부흥집회를 여셨습니다. 신유기도를 하실 때마다 다 기도 받았습니다. 그당시 미국에서 신유능력이 강하셨던 신유부흥사, 레이몬드 리치형제님도 인근에 오셔서 천막집회를 하시기에 가서 신유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기름붓고 기도해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저를 쳐다보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여러번 기도를 하시고 받으셨죠?’ ‘네’ 그녀가 답했습니다.

리치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매님을 위해 기도를 안하겠습니다. 그대신 제가 시키는 일을 하시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쉽다면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쉬운 것만 찾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일은 쉽습니다. 병문제가 생각될때마다 하나님이 치유해주심을 찬양하십시요.”

그녀가 대꾸했습니다.”그러나 전 치유받지 못했는데요?”

그녀의 말의 의미는 “제가 응답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까 ? 저는 아직 병을 고침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리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말씀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드릴수 있습니까? “네, 저는 성경말씀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드릴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마태복음 8:17에서 하나님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24에서는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0817. 이는 대언자(代言者) 이사야에 의해 말해진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아스데네이아:나약함,질병,연약함,유약함)들을 취하셨으며[람바노:취(取)하다,~을 잡다,꽉 잡다,붙잡다,제지하다,받다,시도하다,권세가 주어지다/히브리어 대응어 라카흐], 우리의 질병들(노쏘스:해악,질병,허약,병)을 짊어지셨느니라(바스타조:들어 올리다,지탱하다,운반하다,짊어지다,감당하다,~을 가지고 가버리다).

벧전0224. 그분은 나무에 달린 그분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친히 짊어지셨으니(아나페로:들어 올리다,짊어지다,끌고 올라가다,기르다,수행하다,앞지르다), 이는 죄들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법적 깨끗함[디카이오쉬네:히브리어 체다카(의로움,정직,공의,덕,번영,알맞게,의로운,의롭게,의롭게 행함)에 상응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공정(公正),정의,칭의,의]'에는 살아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채찍(몰롭스:검은 점,검은 눈동자,멍든 자국,멍,타박상,채찍)들에 의하여 너희가 치유를 받았느니라(이아오마이:치유하다,온전케 하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리치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좋습니다. 매번 염려될때마다,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말씀에 따르면 저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을 직장에 보내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했습니다. 저는 침대를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병문제로 염려될때마다 저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자러 갈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 말씀을 찬양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느날, 저는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천식으로 고통받은게 오래됐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통증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네요’” 남편이 대답하길, ‘어, 30일이 됐어’”

저에게 그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긴형제님, 그 30일이 저에게는 8년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천식으로 인한 통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는 신유집회가 있었을 때마다, 모든 신유전도자들에게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유응답은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 말씀의 치유 능력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거나 다른 병에 걸려서 아팠던 때를 뒤돌아보십시오.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몸이 아파"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후에는 병세가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질병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인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의 말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벧전0224. 그분은 나무에 달린 그분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친히 짊어지셨으니(아나페로:들어 올리다,짊어지다,끌고 올라가다,기르다,수행하다,앞지르다), 이는 죄들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법적 깨끗함[디카이오쉬네:히브리어 체다카(의로움,정직,공의,덕,번영,알맞게,의로운,의롭게,의롭게 행함)에 상응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공정(公正),정의,칭의,의]'에는 살아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채찍(몰롭스:검은 점,검은 눈동자,멍든 자국,멍,타박상,채찍)들에 의하여 너희가 치유를 받았느니라(이아오마이:치유하다,온전케 하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나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천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야고보는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아, 말씀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사단아, 나는 너의 질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질병을 거절한다!"

잠언 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0602. 네가 네 입의 말들로써 덫에 걸렸으며, 네가 네 입의 말들로써 잡혔느니라.

입의 말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혀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입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죄를 담당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건강과 치유를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명과 건강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고, 생명과 건강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